“‘달빛내륙 해인사역’은 동서화합 환승역”

조계종 중앙신도회 8월 26일 성명 발표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사에
달빛내륙철도 환승역 설치를
교계 여론도 하나로 모아져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 KTX합천해인사역 유치에 대한 불교계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조계종 중앙신도회(회장 주윤식)는 8월 26일 ‘KTX합천해인사역’ 유치를 염원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을 통해 “제4차 국가철도망 달빛내륙철도 노선확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남부내륙철도와 교차되는 합천 해인사역이 반드시 설치되어 2천만 불자들의 성지순례는 물론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세계문화유산을 탐방 할 수 있는 날이 오길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성명에서 삼보사찰을 비롯한 성보문화유산이 달빛내륙철도 구간에 산재해 있음을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 등 삼보사찰을 비롯해 그 속에 담겨 있는 소중한 성보 문화유산은 우리 모두의 것으로 다함께 보존하고 전승해야 할 가치와 의무가 있다”며 “특히 합천 해인사와 가야산 일대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세계기록유산인 팔만대장경을 포함한 수많은 국보와 보물 등 각종 문화재들이 산재하고 있다. 남부내륙철도와 달빛내륙철도가 교차돼 누구나 자유롭게 경유 할 수 있다면, 숭고한 우리 문화유산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의 통로로 자리매김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앙신도회는 이어 합천 해인사역 개설을 통해 불자들이 주축이 된 동서남북 대통합 행보에 나설 수 있다고 밝혔다.

중앙신도회는 “우리 불자들은 합천 해인사역이 영호남 교류 발전은 물론 동서남북의 대통합을 위한 환승역의 역할을 극대화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으로 보다 균형 있는 국토 발전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며 “국립공원 및 문화유산 탐방의 접근성을 높이며 더 나아가 세계인의 발길이 닿을 수 있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달빛내륙철도 사업(총연장 199㎞ · 단선)은 대구~고령~합천~거창~함양~장수~남원~순창~담양~광주 등 10개 지자체를 고속화철도(시속 120㎞)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대구와 광주를 1시간 생활권으로 묶을 수 있어 동서화합 노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지난 7월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구~광주를 잇는 달빛내륙철도가 확정됐으며, 이에 ‘남부내륙철도 해인사역 유치위원회’는 환영 입장과 함께 현재 추진 중인 남부내륙철도에서의 ‘KTX합천해인사역’을 달빛내륙철도 환승역으로 유치하는 것을 함께 모색하고 있다.

국토부는 남부내륙고속철로 건설 추진하며 해인사를 비롯한 불교계 여론을 뒤로 ‘해인사역’ 배제 움직임을 보여 반발을 산 바 있다.

국토부가 올해 초 공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는 합천 경유 역사에서 해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요구하는 ‘해인사역’이 배제되고 합천읍 서산리와 율곡면 임북리에 ‘합천역’을 건립하는 2개안이 제시돼 해인사역 유치위가 이 안을 반대하는 청와대 앞 1인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참좋은우리절 베트남불자회 백중법회

베트남 코로나 극복성금과 마스크 1만장 전달



전주 참좋은우리절(주지 회일)은 8월 22일 우란분절을 맞아 베트남불자회 백중법회를 봉행했다.

최근 강화된 코로나 방역 지침에 따라 베트남 스님, 참좋은우리절 대중스님, 베트남 출신 결혼 이주여성, 유학생, 노동자 등 90여 명이 동참한 이날 법회는 베트남 불자들에게 안정을 주고 힘을 북돋는 소중한 시간이 됐다.

법회에서는 한국의 불자들과 베트남 출신 불자들이 모은 성금 500만원과 방역 마스크 10,000장을 코로나로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베트남에 전달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참좋은우리절에서 수행 중인 베트남 출신 심동 스님은 “코로나로 인해 베트남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저개발 국가인 베트남은 국가지원과 의료시설이 열악해 이에 따른 모든 고통은 국민이 감수해야 한다”며 “참좋은우리절 신도들의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마음은 베트남 국민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올 것”이라고 감사인사를 전했다.

현재 베트남은 하루 감염자가 2만명이 넘을 정도로 코로나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현지인들은 통계보다 훨씬 심한 상황이라 전하고 있다. 호치민 등 대도시의 봉쇄조치로 경제 또한 타격을 입으며 서민들은 생계유지에 곤란을 겪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화엄사,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전달



신축년 하안거 해제를 맞아 국내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이 전달됐다.

지리산 화엄사(주지 덕문)는 8월 22일 각황전에서 하안거 해제법회를 열고 구례지역 난치병 어린이 2명에게 치료비 1800만원을 전달했다.

이번 치료비 전달은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이 진행하는 제21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치료비 지원사업 일환으로 구례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센터장 도운)를 통해 난치병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덕문 스님은 “코로나19로 사회가 어렵고 힘들지라도 대중의 원력으로 이겨나가고 있다. 결재 중 대웅전 삼존불이 국보로, 각황전 3불 4보살상이 보물로 지정됐다. 이는 화엄사의 경사이자, 사부중대중의 노력”이라며 “난치병 어린이들도 어떠한 어려움에 절망하지 말고 힘을 내 주기를 바란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빛고을나눔나무, 어린이 영양제 전달



사단법인 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함께 ‘붓다의 선물’ 국내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광주광역시 남구청(청장 김병내)에 차상위계층 어린이를 위한 영양제를 8월 23일 전달했다.

지원 물품은 300만원 상당으로 60세대 어린이에게 전달됐다. 물품이 지원된 어린이들은 남구청 관내 차상위계층만 12세 이하 미취학 어린이들로, 건강검진을 통해 다른 아이보다 체중이 적거나 영양소가 부족하여 선별됐다. 전달식에는 도성 스님, 중현 스님, 광주불교연합회 총무부장 해청 스님, 광덕사 상진 스님, 김병내 남구청장, 박귀환 남구청불자회장 등이 참여했다.

도성 스님은 “성장기 어린이들은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필요한데, 여러 가정형편으로 또래의 아이들보다 뒤쳐진 경우가 많다”며 “아이들의 건강에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지원 소감을 밝혔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고성 건봉사 7차 염불만일결사 입재

2049년 1월까지 진행

‘아미타 정토 극락도량’인 고성 건봉사(주지 현담)는 8월 24일 제7차 염불 만일기도에 입재했다. 총 일정은 27년 5개월 간의 대장정이다.

건봉사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일염불회(萬日念佛會)가 열렸던 염불도량으로 758년 발징화상이 정신 · 양순 스님 등 31명의 스님과 함께 1만일(27년 5개월) 동안 만일염불회를 베풀면서 우리나라 만일염불회의 효시가 됐다.

건봉사는 일제강점기까지 총 6차에 걸쳐 염불만일결사 전통을 이어왔다. 이에 6차 결사 100년 만인 8월 24일 염불만일결사에 재입재했다. 회향은 27년 5개월 후인 2049년 1월 8일이다.

결사 동참자들은 매월 둘째, 넷째 토요일 건봉사 극락전에 모여 ‘나무아미타불’ 염불 철야정진을 한다.

8월24일 열린 염불만일 결사 입재식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건봉사 사중 스님과 최소 인원만 참석한 가운데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거행됐다.

건봉사 주지 현담 스님은 “27년 5개월동안 나무아미타불 염불소리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난 위기 극복을 위해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겠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사랑의 집’, 진안 사찰들이 만들다

8월 23일 지역민 입주 후원
지난 2월 화재로 주택 전소
컨테이너 거주 주민에 전달



진안군 자원봉사센터는 8월 23일 제9호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개최했다.

진안 마이산 탑사와 금당사, 쌍봉사 등 진안지역 사찰들이 화재로 집을 잃은 지역민에게 사랑의집을 선물했다.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진성, 마이산 탑사 주지)는 8월 23일 진안군 성수면 달길마을에서 ‘제9호 진안군 성수면 사랑의 집’ 입주식을 가졌다.

이번 사랑의집 신축은 올해 2월 전기 화재로 주택과 창고가 전소돼 가전 도구는 물론 수확한 농작물을 잃고 구사일생 몸만 빠져나와 재난구호용 콘테이너에서 일용근로로 생활하는 지역주민을 위해 마련됐다.

사랑의집 신축은 진안군 자원봉사센터가 후원금을 모금해 자재를 구입하고, ‘진안군집지어주기자원봉사단’의 재능기부로 진행됐다.

진안군자원봉사센터의 사랑의집 신축 사업은 2015년 마이산탑사 주지 진성 스님의 지정신탁으로 시작돼 이번이 9번째다.

이날 입주식에는 진안군자원봉사센터 이사장 진성 스님과 최주연 센터장을 비롯해 쌍봉사 주지 보경 스님, 전춘성 진안군수, 김광수 군의장, 이한기 전북도의원, 후원자, 집짓어주기자원봉사단, 성수면자원봉사단, 마을주민 등 50명이 참석해 입주를 축하했다.

입주식에서는 제9호 진안군 사랑의 집을 신축하는데 기여한 ㈜가온우드와 집짓어주기자원봉사단 김태수 봉사자에게 진안군수 표창장 수여식도 함께 진행됐다.

이사장 진성 스님은 “진안군 사랑의 집은 주택화재로 집을 잃은 수혜자를 선정해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며 “화재로 인한 후유증을 극복하고 하루빨리 생활의 안정을 찾아가길 바란다. 앞으로 더 활발한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전춘성 진안군수는 “화재로 주택이 전소된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의 손길을 건네준 자원봉사센터와 재능기부 자원봉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행복한 진안을 만들기 위해 앞장서는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 현장에서 즐겁게 봉사할 수 있도록 행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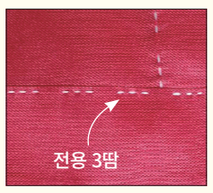
입주자 손 모씨는 “형제간도 해줄 수 없는 보금자리를 선물해줘서 너무 감사하다”며 “성수면자원봉사단에 가입해 내가 받은 선물보다 더 많은 봉사로 보답하겠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만복승복(가사)

{ 특허권자가 승복을 지으면 뭔가 다릅니다!! }

본 승복사는 가사를 전문적으로 짓는 업체입니다. 가사를 어떻게 하면 더 좋고 더 멋있는 가사를 지을 수 있을까 노심초사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업체입니다. 만복사(승복사)는 미싱 가사가 아닌 수가사식으로 지은 전통 3땀 가사이오며, 타 업체 가사보다 가격이 저렴하고 가사의 가로, 세로의 크기가 거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마음 놓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3땀 가사로 발명특허까지 출원하여 많은 스님들께서 좋아하십니다. 믿고 맡겨주십시오.





만복승복
010-3258-3568 / 031)844-5233
의정부시 의정부동 160번지 라동 23호(제일시장 내)

겨울철 난방(煖房) 걱정 끝!

바닥철거 없이 시공가능 난방비 50% 절감
21세기 신 난방 문화의 대변혁 : 법당, 요사채, 선방, 공양간 등

◆ 시공실적 ◆
해인사 백련암, 미황사(해남), 대흥사(단양), 용담사(안동), 연꽃마을(용인요양원), 전국 캠핑장 킴핑트레일러(경인 아라뱃길, 가평 자라섬), 대부도 캠핑장, 성동힐링센터(동강) 등

이동식 주택형 찜질방 제작판매(2인, 4인, 6인용)
“정직한 시공으로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정원난방산업 www.garden-heating.com 문의 **010-3267-1263**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